

※ 미사 안내 ※		 <b>동백성마리아성당</b> (우)1699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151 <a href="http://db.casuwon.or.kr">http://db.casuwon.or.kr</a>	주임신부 문상운(알베르토)
평일	월 6시 30분 화·목 19시 30분 수·금 10시 첫 토요일 10시(성모 신심)		총 회 장 이학구(빈첸시오)
주일	토요일 19시30분(청년) 11시(교 중) 16시(어린이) 19시(청소년)		연령회장 박희숙(울리엤타) 010-6288-4311
			사 무 실 031-286-1175
			F A X 031-286-1141



**축**

**견 진**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일사: 11월 24일(주일) 19:00 청소년미사 중

**+ 미사, 전례, 성사**

**■ 기흥지구 연합 청년 폐제 미사**

- 일시 : 11월 30일(토) 19:30 동백성마리아 성당
- ※ 미사 후 아가페(나눔) 행사 있습니다.(지하1층 식당)

**■ 12월 첫 주간 전례 안내**

- 성시간 : 12월 5일(목) 19:30
- 성모 신심 · 성가정 미사 : 12월 7일(토) 10:00

**■ 12월 환자 영성체 안내**

- 일시 : 12월 6일(금) 오전 11시
- 신청 기한 : 12월 4일(수) (지역장, 사무실 문의)

**■ 2024년 대림 판공성사 일정 안내**

일 자	지 역	시 간
12/10(화)	7,8,9지역	• 오전 10:00 - 12:00
12/12(목)	5,6지역	• 오후 19:00 - 21:00
12/17(화)	3,4지역	※ 오후시간 판공성사는 손님신부님께서 주십니다.
12/19(목)	1,2지역	
공동 보속		• 묵주기도 5단 바치기 • 평일미사 1회 참석하기

※ 판공성사는 통상 고해성사와 똑같지만 성사표가 발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고해성사를 강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자들이 전례력의 핵심이 되는 성탄과 부활축제를 잘 준비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교육, 피정, 행사**

**■ 2024년 성탄반 세레식**

- 일시 : 12월 8일(주일) 11:00 교중미사 중

**▣ 특별헌금(2차헌금)안내 ▣**

☞ 다음 주 12월1일 - 대림 제1주일

**■ 레지오 마리아 연차 총 친목회 안내**

- 일시 : 12월 8일(주일) 12:30~15:30 / 지하식당
- ※ 당일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차량이용 자제 바랍니다.

**■ 대림 찰고지 배부 및 회수**

- 대림시기에 대림 찰고지를 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성찰함
- 대림 찰고지 회수 : 12/21일~22일 매 미사 전 후
- 문의 : 교육분과(010-5765-1747)

**+ 기타 공지**

**■ 헌화회 대림환 예약 주문 받습니다.**

- 신 청 : 11월 24일(주일)까지(3만원) / 010-9905-4392

**■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 신청**

- 기간 : 12월 22일(주일)까지 / 사무실
- ※ 간소화 서비스 등록 후에는 **개인정보 및 납부자 변경 불가**
- ※ 세대원간 납부자 변경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 월례회의 및 단체 회합 안내**

• 중고등부복사단	11월 24일(일)	20:00
• 연령회	11월 24일(일)	12:00
• 사목협의회	11월 28일(목)	미사 후
• 빈첸시오	11월 28일(목)	미사 후

**■ 교중 미사 전례 및 청소 봉사**

전 려		청 소	
11/24 (일)	4지역(1)	11/23 (토)	2지역
12/ 1 (일)	4지역(2)	11/30 (토)	3지역

- 지난주 봉사해 주신 교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전입 교우**

**♥ 환영 합니다 ♥**

성 명	현주소	이전 본당
정대영 홍 병 주 베 드 로 서해 1100	수원/용인	
오영애 리 디 아 경남 2800	전주/가톨릭센터	
정옥현 토 마 스 아 퀴 나 스 코아루 2200	수원/능평	

**■ 교무금 입금자 찾습니다.** 11/16일 성명 111410002로 우리은행 교무금 통장에 입금하신 분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요한 18,37)



✦ 우리들의 정성 [11월 11일(월) ~ 11월 17일(주일)]

연중 제33주일		3,930,500원		동백성요셉성당 후원		1,331,000원		주일미사 참례자수		795명	
교 무 금  6,190,000원		강상훈 요 한		문장용 베 드 로		이경선 데 레 사		조 옥 희 수 산 나			
		김기관 토마스아퀴나스		문주리 그 라 시 아		이경자 체 칠 리 아		조 해 문 마 르 타			
		김병자 아 가 다		박미희 데 레 사		이금희 울 리 아		조 현 숙 로 사 리 아			
		김선중 데 레 사		박은옥 크리스티나		이낙현 클레멘스		주 지 탁 스테 파 노			
		김성욱 안 토 니 오		배상열 요 셉		이동환 스테 파 노		진 남 연 가 타 리 나			
		김성태 아 네 스		서영재 모 니 카		이미옥 베로니카		진 은 희 데 레 사			
		김승혜 데 보 라		송예섭 발 렌 티 나		이영숙 루 시 아		차 경 숙 마 리 아			
		김윤경 세 실 리 아		송재준 암브로시오		이재영 데 레 사		최 진 탁 제 라 르 도			
		김인한 도 미 니 코		신아영 가 타 리 나		이정란 루 치 아		한 순 자 안 젤 라			
		김지연 세 실 리 아		양혜자 그레첸시아		이종화 요 셉		한 은 이 헤 레 나			
		김진자 헬 레 나		오경아 카 타 리 나		이학구 빈첸시오		홍 순 주 안 젤 라			
		김 현 제 노		유경호 프란치스코		임경순 미 카 엘라					
김휘숙 켄 마		은찬기 미 카 엘		정순석 그레고리오							
나정선 마 리 나		이건욱 시 몬		정은이 카 타 리 나							
감 사 헌 금		김보상 바 올 로 200,000		김윤경 세 실 리 아 100,000		박길중 요 셉 50,000					
		김성욱 안 토 니 오 50,000		김혜경 모 니 카 50,000		조 옥 희 수 산 나 20,000					
제 대 꽃		김옥희 스테파니아 10,000		김정한 프란치스코 10,000		나 정 선 마 리 나 30,000					
		익 명 200,000									
후 원 금		김기관 토마스아퀴나스 100,000		진 은 희 데 레 사 100,000							
성 소 후 원 금		김정한 프란치스코 10,000		손 옥 란 미 카 엘라 10,000		최 은 진 마 리 데 레 사 30,000					
사회복지후원금		임경순 미 카 엘라 20,000		조 옥 희 수 산 나 30,000							
토지·건축헌금		고건영 마 리 아 500,000		주 지 탁 스테 파 노 100,000							
본당 부채 현황(교구 차입금·토지)				금주 토지·건축 봉헌금				본당 부채상환 적립금			
1,100,000,000원				600,000원				85,990,000원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1-858011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책정자명과 세례명 꼭 기입)									

♡ 봉헌해 주신 신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간지 교리

◆ 교무금이란 무엇인가요?

교무금(敎務金)이란 교회의 활동과 운영, 유지를 위해 신자 가구에서 매월 일정액을 교회에 봉헌하는 돈으로, 그 유래는 구약시대 십일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십일조는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 결국 하느님께 속한 것이라는 일종의 신앙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전승되어 신자들은 헌금과 교무금의 형태로 교회에 일정액을 납부하면서 십일조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에서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 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음(222조 1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 교무금, 갑작스런 수입의 감소나 가정 형편의 변화로 교무금을 연체하다가 냉담에 빠지는 이들도 많습니다.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책정한 교무금을 완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납 교무금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제도는 없습니다. 밀린 교무금에 대한 부담으로 책정을 미루거나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교무금의 핵심은 액수가 아닙니다. 교무금은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기 봉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을 먼저 주님께 바쳤듯이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최고의 것을 먼저 하느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루가 21,1~4)처럼 주님께로 향하는 진정한 마음과 정성이 깃든 교무금이야말로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최상의 봉헌입니다.